

추석 코앞인데... 시름깊은 나주 배농가

씨알값은 '신고' 수확 예년의 40%... 가격도 신통찮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주배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늦은 개화에 잦은 비와 태풍, 일조량 부족까지 겹치는데 예년보다 추석이 빨라 출하량도 크게 줄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나주지역 과수농가 등에 따르면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 배 생산량이 평년 예상량 8만5000t을 크게 밑돈 6만5000t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해는 매년 4월 10일을 전후로 만개

하던 배꽃이 저온현상으로 인공수분 이 열을 가량 늦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배 생육기간이 짧아졌고 여기에 6월부터 계속된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생육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나주시와 광주지방기상청은 7~8월 일조량이 평년보다 30%가 적고 비는 30~50%가 더 내린 것으로 집계했다.

또 지난달 전남지역을 강타한 태풍 '무이파'로 2050여ha에서 평균 20%

가량이 떨어지는 등 나과도 농가들 합들게 하고, 잦은 비로 '검은별무늬병' 등 병해에다 태풍으로 상처입은 과일이 대량 발생하는 등 상품성도 떨어지고 있다.

추석이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빨리 찾아오면서 중만생종인 '신고' 품종의 경우 상품성이 큰 대과(大果) 비율도 예년 60~70%보다 크게 떨어진 4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출하량도 줄어 추석을 열흘 가량 앞둔 나주 산지에서는 예

년의 70~80% 수준인 1일 4000여 상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지 가격은 7.5kg 한 상자에 2만 8000원으로 예년과 비교해 2000~3000원 낮은 수준으로 추석이 다가오면 물량이 부족한 만큼 가격은 예년 수준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 영산포농협 관계자는 "출하 물량이 적는데도 가격은 예년 수준보다 못하다고 있다"며 "작황부진과 10여 일전 첫 출하시 높은 가격을 의식한 소비자들이 구매를 기피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성공 귀농' 비법 전수 합니다

강진 수암농장 김윤선씨 '귀농대학' 운영 희망자들에 흑염소 등 축산 노하우 지도

강진에 한 축산농민이 귀농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31일 강진군에 따르면 김윤선(작전면 갈동리) 수암농장 대표는 지난해 수암 축산 귀농대학(blog.daum.net/kgs5451)을 설립해 지난 4월부터 축산 귀농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흑염소 사육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축산 귀농희망자들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1998년 IMF 당시 사업실패 후 고향으로 돌아와 흑염소 사육을 시작해 10년이 지난 지금 축산 특새 소득성공을 이뤘고, 귀농 희망자나 농민들에게 돈을 버는 실질적인 귀농교육을 해 봐야겠다는 신념에 귀농대학 설립

에 나섰다.

김 대표는 귀농에 성공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집중적으로 교육, 실패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자는 교육 목표와 귀농 전문가들을 초청해 사례 발표와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알려지자 귀농희망자 뿐만 아니라 흑염소 사육자, 공무원, 농업인 등 많은 사람들이 수암 축산 귀농대학을 찾고 있다. 수료자는 축산 정부자금 보조·용자 대상자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고, 귀농·귀촌협회 가입 및 축산 귀농대학 평생회원으로서 기술경영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특히 전남도는 지난 7월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14조에 의거 수암 영농조합을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체험 실습교육장' 제1호로 지정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수암 축산 귀농대학이 더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 축산 귀농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앞으로 귀농을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흑염소, 풀밭, 닭, 오리, 토하, 미꾸라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귀농자가 반드시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암 축산 귀농대학은 지난 달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1박2일 4회 과정으로 '제2기 흑염소반 교육'을 실시한다.

추석맞이 외국인 한마당 잔치

4일 광산구 경암공원... 5개국 전통문화 선보여

'추석맞이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이 오는 4일 광주 광산구 하남동 주민센터 뒤편 경암 근린공원에서 열린다.

광산구(구청장 민형배) 주최, 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대표 이진영)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11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이 참석한다.

올해 한마당은 예전 주최측 중심으로 마련된 행사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석했던 것에서 탈피해 외국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참석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5개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무에타이, 대나무 춤 등 자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인다.

또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등 5개국과 한국 고유의 음식이 마련된다. 준비된 음식은 키르(네팔), 월남 쌀, 볶음밥(스리랑카식), 녹두전, 사철리크(우즈베키스탄식 꼬치구이) 등이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이 즉석에서 조를 짜 짜다리기, 단체줄넘기, 바구니 터뜨리기 등 6개 종목으로 구성된 명랑 운동회를 펼친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1만3000여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6000여명이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다"며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새로운 화합 문화가 광산구에서부터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비브리오패혈증 확산 예방 화순군보건소 대책회의

화순군이 비브리오패혈증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순군 보건소(소장 김연옥)는 최근 어패류 취급업소 대표와 한국을 정하고 존중해 새로운 화합 문화가 광산구에서부터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군 대책회의를 가졌다.〈사진〉 군 보건소는 어패류 등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도록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고위험군에 대한 개인별 방문과 전화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섰다.

김연옥 보건소장은 "패류 취급업소에서는 수족관 냉각기의 철저한 운도 관리와 원거리 심해수를 수족관수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 문예회관 부분 개관

지하층·지상 3층 규모

206석 소공연장 등 갖춰

현재 건축 공사중인 장성 문화예술회관(이하 장성 문예회관)이 3일 부분 개관한다.

장성 문예회관은 지난 2009년 2월에 착공해 올해 8월까지 2년 6개월에 걸쳐 184억원이 투입됐다.

문예회관은 연면적 7257㎡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06석의 소공연장·연습실·리허설룸·분장실·휴게실 등 내부시설과 음향·무대조명, 공연 장비 등을 갖췄다.

이번 부분개관은 대공연장을 제외한 소공연장 중심으로 한다. 군은 내년 6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 미완성 상태인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3일 오후 4시 장성 여성합창단과 최화진 교수가 함께 하는 '최화진 교수의 이야기'를 개최하며, 4일에는 영천농악 마당배기와 현관 제막, 한림예술단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군은 앞으로 ▲9월 태고음악회·모

여러 전국 동네밴드 경연·찾아가는 문화활동 ▲10월 퓨전 국악콘서트·아시아드 오케스트라 재즈이야기·전남 관악회 및 육군 군악대 초청 공연 ▲11월 방방곡곡 문화공간 코리안 심포니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061-390-7745)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전 북

"김제역에 KTX 정차 시켜달라"

10만 서명부 정부에 전달

오는 2015년부터 운행하는 호남고속철도(KTX 오송역~광주 송정역)의 정차 구간에서 제외된 김제시가 KTX의 김제역 정차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제시는 지난 31일 이진식 시장, 최규성 국회의원, 김문철 시의장 등이 시민 10만명에게 받은 'KTX 김제역 정차와 KTX 김제역 신설 등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에 전달했다.

또 이들은 "호남고속철도 복선화 공사가 완료되는 2015년도부터 KTX가 지역에 서지 않아 교통 불편이 커진다"며 KTX 김제역 정차와 김제역 신설, 김제역의 승동이전을 건의했다.

이들은 "KTX가 김제를 지나치면 시민은 물론 전주혁신도시내 11개 공

공기관을 포함한 전북 서부권 54만명의 교통불편이 커지고 지역이 낙후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제역을 KTX가 지나가는 순동사거리로 이전하면 혁신도시에서 10분, 전북도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해 시민과 도민의 교통편리성도 도모된다.

아울러 새만금~변산반도로 이어지는 서해안관광벨트 구축까지 가능하리"고 강조했다.

호남고속철도는 2015년부터 충남 오송에서 경부고속철도와 나뉘는 뒤 공주~익산~정읍~광주를 거쳐 목포역에 이르며 김제는 정차역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김제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부터 시민서명을 전개해왔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한마음 걷기

남원시는 지난 29일 운봉읍 허브밸리 일대 5.8km 구간에서 지리산 반야봉에 케이블카 설치를 기원하는 한마음 걷기대회를 가졌다. 현재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를 위해 남원시를 비롯해 함양, 산청, 구례 등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연합을 벌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남원시는 지난 29일 운봉읍 허브밸리 일대 5.8km 구간에서 지리산 반야봉에 케이블카 설치를 기원하는 한마음 걷기대회를 가졌다. 현재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를 위해 남원시를 비롯해 함양, 산청, 구례 등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연합을 벌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기초의회 잇따라 의정비 동결

도의회도 동참... 호우피해 주민들과 고통 분담

전북지역의 기초단체 의회가 잇따라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다.

임실군의회는 지난 31일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302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17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로써 임실군의회는 4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다.

의정비 동결로 집행부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예산절감 효과도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8월 중순 부안군, 남원시, 무주군의회 역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해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도내 기초단체 의회도 의정비를 동결한 이들의 의의 영향을 받아 소폭 인상이나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

3년째 연간 492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는 전북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임실군의회 이순봉 의장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의정비 인상이요인이 있지만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열악한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도교육청 주 1회 '채식의 날' 시범학교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육류 중심의 식사에 길들여진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 위해 '채식의 날'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채식의 날' 시범학교로 전주 효림초등학교 등 도내 20개 학교를 지정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한다.

지정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주 1회 '채식의 날'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채식을 기반으로 한 급식을 제공한다. 학교 측은 채식급식을 통해 환경 보전과 식습관의 중요성을 일깨울 예정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선거당시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도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채식급식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도의회 광장 2~4일 정보화마을 농산물 장터

전북지역 정보화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장터가 2~4일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열린다.

이 장터에서는 도내 39개 정보화 마을에서 생산한 쌀, 사과, 배, 고추, 잡곡, 더덕, 뽕잎 차, 잼 등 각종 농산물과 가공품 200여 점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판매하며

일부는 할인한다. 치즈, 감장, 아카시아꽃 튀김 만들기 등 각종 체험행사도 운영된다.

정보화 마을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직접 또는 가공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세계소리축제 온라인 티켓 예매 시작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온라인 티켓 예매가 지난 31일 시작했다.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사랑티켓(www.sati.or.kr), 문화바우처(www.cvoucher.kr), 호시탐탐(www.hottam.co.kr)에서 할 수 있다. 표를 미리 사면 사랑티켓 후원 대

상자는 프로그램당 7000원, 문화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50%의 할인 혜택을 각각 준다.

11회째를 맞는 올해 소리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46개 프로그램에 261회 공연을 선보인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해경, 해상 과속 음주 향해 집중 단속

군산해양경찰서가 군산과 충남 서천 일대 해상에서 과속과 음주 항해를 집중 단속한다.

군산해경은 최근 개항 항해구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속과 음주항해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9일까지 계도를 거쳐 10일부터 말까지 특별단속

을 벌인다. 개항장은 외국과 통상할 수 있게 항구를 개방해 언제나 자유롭게 배가 출입하고 정박하는 항구로, 군산시 소룡동의 국제여객선 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충남 서천 유부도까지 이어지는 통항로가 해당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정읍 방사선과학, 연구기반 확충사업 선정

정읍 방사선 과학연구소가 지난 31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방사선 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250억원 규모로, 지방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2011년

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연구기반인 프라 시설이 들어서면 방사선을 활용한 보안검색 등 기기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중소 추석상여금 지급 줄었다

내수 부진 경영 악화 작년보다 10% 감소

전북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추석 상여금을 주는 업체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도내 1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급하겠다'는 업체가 65.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5.3%와 비교해 10.1%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추석 상여금을 주는 비율은 2007년 88.6%를 최고로 해마다 줄고 있다.

평균 지급액은 기본급의 63.2%로 작년의 60.7%보다 2.5% 포인트 늘었다.

휴무기간은 3일이 53.8%로 가장 많았고 4일 28.6%, 5일 이상 6.7%, 2일 이하 5.0%였다.

추석 자금 확보율도 작년의 67.2%보다 10.6% 포인트 떨어진 56.6%로 조사됐다.

왕길호 본부장은 "내수 부진과 원가 상승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하면서 추석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